

“태양광·풍력 기술 개발... 전남 환경산업 이바지 할 것”

박응렬 신임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지난 1988년 5월 전남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1990년 환경부로 옮긴 뒤 30년만에 다시 전남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전남이 갖고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다양한 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및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전남 환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박응렬(62) 제3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은 ‘고향’과 ‘봉사’를 강조하며, 설립 8년째를 맞아 기틀을 마련한 진흥원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광 출신으로 기술고시(22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전남도와 환경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한 그는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경륜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중장기 대규모 사업과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수주할 방침이다.

“제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진흥원이 궤도에 오르

영광 출신... 토양·지하수 등 전문가
전남 여건 활용 고용·고부가가치 창출
지류·지천 모니터링 영산강 오염 해결

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그는 토양·지하수·하수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통한다.

박 원장은 “환경산업 진흥을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산업 관련 시장이 넓고 발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활발하지 못해 막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선 7기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의 추진 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그는 “태양광, 풍력, 해안선, 산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남의 여건을 활용해 고용을 창



출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와 연계된 기술을 개발한다면 전남도의 도정 목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 즉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절감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전남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과 영산강 수질오염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봤다.

박 원장은 “은실가스와 화학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 규모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의 대기오염 문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안에서 환경실태조사, 주민 건강영향조사,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4대강 중 가장 열악한 영산강 수질오염 문제는 지류·지천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각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개발은 결국 자연훼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는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美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 부고면만 16면 코로나19 참혹함 보여줘... 유럽신문도 대폭 늘려

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의 부고면이 16면(사진)에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일깨웠다고 CNN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9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발행하는 보스턴 글로브 일요일판의 부고면은 자그마치 16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7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한 주 전의 11면보다도 5면이 추가됐다.

CNN은 코로나19가 매사추세츠주와 뉴잉글랜드주에 끼친 참혹한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전했다.

보스턴 글로브의 디지털 담당 편집자인 재클린 리스는 부고에 사인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지면에 등장한 인사 중 몇몇이나 코로나19로 숨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흑백의 문자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리스는 사망자 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장례를 치르기 어려워진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

리기 위해 독자들이 많이 읽는 일요일판에 부고를 내길 원하면서 지면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해석했다.

다른 지역 매체의 사정도 비슷하다. 루이지애나주 지역 매체인 타임스-피커언과 뉴올리언스 애드버킷도 같은 날 부고면이 8면을 넘겼다.

애드버킷은 “지난해 같은 주말에는 부고면이 4면이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일간지 스타레저는 지난 12일자 신문에 9면에 걸쳐 총 109개의 부고 기사를 실었다.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탈리아에서도 한달 전 지역 매체가 부고로 가득 찬 적이 있어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이 이탈리아를 연상케 한다고 CNN은 전했다.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피해가 커 ‘죽음의 도시’로 불렸던 북부 베르가모의 ‘에코 디 베르가모’ 지역 신문에는 지난달 14일 부고 기사가 전체 지면 중 10면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김준하 지스트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위촉

과학기술 국정과제 조정·자문 참여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사진) 지구·환경공학부 교수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교수는 국민성장 분과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국정과제 조정, 정책 기획 및 자문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17년 12월에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돼 100대 국정과제 조정 및 정책 현안과제 연구, 국가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기획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주권(정책, 행정, 사법), 국민성장(경제, 과학기술), 포용사회



(복지, 노동, 환경, 자치분권, 균형발전), 평화번영(외교, 안보)의 4개 분과로 새롭게 운영된다.

김 교수는 지난 2004년 지스트 교수로 임용된 후, 과기부·환경부·국도부 등의 연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오랜 기간 환경 빅데이터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슈퍼컴퓨팅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도시환경전문센터장 직을 수행하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신산업 육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구,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삼계탕 전달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20일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보양 삼계탕 350인분을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동원사(주지 지장스님), (사)자비선행회(이사장 이화영), 계륜당(주지 지장스님)에서 후원했다.

(동구청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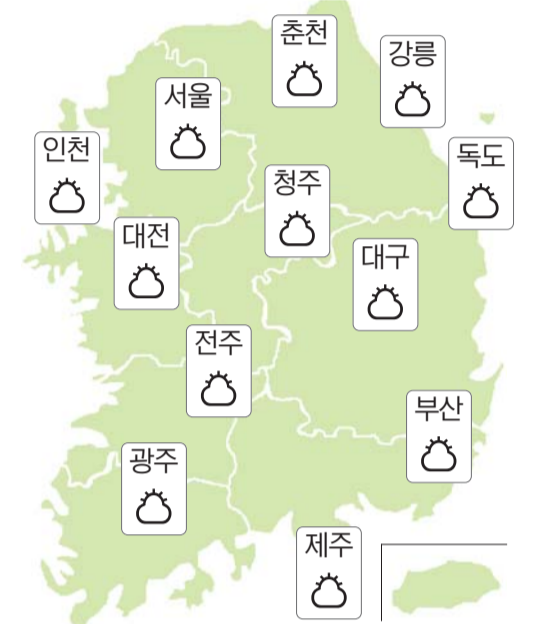
해돋이	05:52	달뜨기	05:39
해질	19:11	달짐	18:23

시설물 관리유의

고기압 기압지대에 들어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5/13	보성	맑음	2/13
목포	구름많음	7/11	순천	구름많음	5/14
여수	구름많음	7/14	영광	구름많음	5/11
나주	구름많음	3/12	진도	구름많음	7/13
완도	맑음	7/13	전주	구름많음	5/12
구례	구름많음	3/13	군산	구름많음	6/11
강진	맑음	4/13	남원	구름많음	2/12
해남	맑음	5/12	흑산도	구름많음	8/13
장성	구름많음	3/12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2.0~3.0	2.0~3.0	2.0~3.0
	면바다(북)	2.0~4.0	2.0~4.0	2.0~4.0
남해서부	앞바다	2.0~4.0	2.0~4.0	2.0~4.0
	면바다(서)	1.5~2.5	1.5~2.5	1.5~2.5
	면바다(동)	2.0~4.0	2.0~4.0	2.0~4.0
	면바다(남)	2.0~4.0	2.0~4.0	2.0~4.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11	01:55
	19:25	14:08
여수	02:39	08:56
	14:54	21:11

◇ 생활지수

보통	보통	나쁨

◇ 주간 날씨

23(목)	24(금)	25(토)
5/14	4/18	9/20
26(월)	27(화)	28(화)
7/19	8/19	7/19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2일(음 3월 30일 乙未)

☎ 010-9790-8237

36년생 성과물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된다. 48년생 지금 즉시 바로 잡아두어야 뒤따라 없으리라. 60년생 경협이야말로 국면을 타개하는 최상의 기준점이다. 72년생 생산적인 관계가 되도록 유도하자. 84년생 농치면 후회하게 될 소중한 찬스가 생길 것이다. 96년생 아예 기대 하지 않음이 속 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91

37년생 아는 것이 오히려 우환의 씨앗이 되리라. 49년생 하늘의 도움이 클 것이니 품은 뜻을 펼쳐 볼 수 있는 때이다. 61년생 이전의 양태와는 전혀 별개이니 따로 따로 다루어 할 문제이다. 73년생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85년생 체면 차리다가 중요한 것을 실기할 수도 있으니라. 97년생 신속하고 정확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9, 66

38년생 태평스런 향화가 될 것이다. 50년생 쾌도난마해야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62년생 순풍이 불어온다. 74년생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 86년생 주체성 있는 관점이 절실하다. 98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의 돌발 상황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1, 56

39년생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 한다면 문제없겠다. 51년생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해하리라. 63년생 일관성이 있었다면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케 할 것이다. 75년생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87년생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옳다. 99년생 확신이 서더라도 아직 실행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4, 92

40년생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52년생 분명히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76년생 적폐가 보이거든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88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위험이 싹쓸 수 있다. 00년생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6, 69

41년생 목전에서 실제로 드러날 수 있다. 53년생 잡다한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추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65년생 계획된 바를 진행하기에 썩 좋은 날이다. 77년생 드디어 학수고대해오던 결단의 시기가 되었느니라. 89년생 자료를 종합한 다음에 행하라. 01년생 투명한 태도와 일관된 자세만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77

42년생 조언을 구한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54년생 주체적으로 고려한 후에 과단하라. 66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 관계가 성립 하겠다. 78년생 실질적인 이익은 적고 할 일은 많겠다. 90년생 일단 보류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답이다. 02년생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귀중한 기회를 갖는다.
행운의 숫자 : 35, 61

31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낫다. 43년생 석연치 않다면 과감하게 배제해도 된다. 55년생 완성도를 염두에 두어야겠다. 67년생 만세가 이처럼 흘러가게 된 것 역시, 다 이유가 있느니라. 79년생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91년생 단서가 될 만한 소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행운의 숫자 : 09, 78

32년생 서두르다면 빈틈을 보이고야 말 것이다. 44년생 약간만 신경 쓴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56년생 경제적으로 유익한 측면으로 도모해야 한다. 68년생 생이면의 처지와 환경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한 눈에 썩 들지는 않지만 수용하는 것도 괜찮다. 92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63

33년생 쾌도난마한 후에 명확하게 처리 해야만 한다. 45년생 소모적이거나 일회적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만 한다. 57년생 겉모습만 보아도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69년생 무슨 일이든지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이로다. 81년생 피땀 흘려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헛수고이다. 93년생 관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9, 84

34년생 흥겨워 할 것이다. 46년생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라. 58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거대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70년생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82년생 양자의 사이에서 조정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다. 94년생 무리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3, 62

35년생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47년생 은연 자중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59년생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맞이하게 된다. 71년생 새가 깃을 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형상이다. 83년생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니 눈여겨보아라. 95년생 방비책을 튼튼히 해두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행운의 숫자 : 23, 96